



0.1%의 기적 흰제비 3일 서귀포시 대표동 한 음식점 처마에서 흰제비 한마리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태어났다. 흰제비는 색소가 결핍돼 몸이 하얗게 보이는 알비노종을 가진 개체다. 흰제비가 태어날 확률은 생물학적으로 0.1%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희만기자

도, 찾아가는 4·3 치유서비스 확대

생존희생자·유족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와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는 4·3 생존희생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유서비스 사업을 이달부터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제주도는 자체 재원 1억원을 투입해 고령으로 이동하기 힘들거나 원거리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추가 실시한다.

제주도와 치유센터는 이번 권역별로 찾아가는 치유 프로그램을 통

해 심리·정서 및 사회적 관계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는 올해 상반기 출연금(국·도비)을 활용해 서귀포시 강정동, 금악리, 상명리, 안덕면, 남원읍 등에서 사회공동체 치유프로그램을 총 66회 운영했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용이 어려웠던 피해자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행정시장 공모제 무의미… 지명직 필요”

위성곤 지사, 어제 제주도청 출입기자단 간담회
“행정시장은 도지사 업무 방침 수행하는 자리” 언급
“행정체제 개편, 제2공항 마무리될때까지 논의 보류”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모제인 현행 행정시장 임명 방식을 비판하며 공모 없이 지명하는 방식으로 바뀌야 한다고 밝혔다. 공개 모집을 통해 모인 후보를 지명하는 지금의 방식 대신 공모 절차 없이 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직접 지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위 지사는 3일 신문·방송사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현행 행정시장 공모제는 별 의미 없는 제도”라며 “러닝메이트제를 강제하든, (도지사 4년 임기에 맞춰) 2년인 시장 임기를 바꾸든 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지명하는 형태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선거때부터 행정시장을 러닝메이트로 예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시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도

지사와 동시에 임기를 시작할 수 있다.

러닝메이트 사전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방형 공모 절차를 진행하며, 역대 모든 제주지사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러닝메이트 대신 공모를 통해 행정시장을 인선했다.

민선 9기 도정도 최근 공모를 통해 제주시장에 이상봉 전 제주도의회 의장을 지명했으며, 서귀포시장은 유력 인사의 건강상 문제로 재공모 절차를 밟고 있다.

위 지사는 “공모제는 본래 중립적인 전문경영인을 임명하기 위한 제도”라며 “도지사의 업무 방침을 수행해야 하는 행정시장 자리에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시장이 도지사에게 업무보고를 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며 도와 행정시 사이에 사실상 지휘·보고 체계가 없다고 꼬집기도



위성곤 지사.

한라일보 DB

했다. 위 지사는 “1급 공무원에 불과한 행정시장이 과거 관행 때문에 선출직 기관장처럼 인식되고 있다”며 “4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권도 시장에게 있어 공무원들이 도지사가 아닌 시장만 바라보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진단했다.

위 지사는 현재의 행정시 체제를 20년간 이어진 임시 체제로 규정하며 개편 필요성을 내비쳤지만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당시에는 행정시 없는 단층제로 설계됐으나 정치적 논의 과정에서 도민사회의 혼란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행정시장 제도가 도입돼 ‘제주도-행정시-읍면동’ 3단계 구조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일시적 조직으로 추후 폐지될 계획이었던 행정시는 지난 20년간 규모를 키워나갔다.

위 지사는 인구 40만명 규모이면 서도 읍·면·동을 직접 운영하는 세종특별시의 사례를 들어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나 광역 단층제 등으로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귀포시만 기초자치단체로 전환하는 방안을 언급하며 미국 워싱턴 D.C.처럼 하나의 자치단체를 먼저 두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지금은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대한 도민 피로도가 상당하다며 제2공항 문제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관련 논의를 본격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청년 대출 지원 혜택 ↑· 부담 ↓”

도, ‘빛나는 제주청년 희망대출 3.0’ 출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청년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기존 대출 상품을 개편했다

제주도는 개편된 ‘빛나는 제주청년 희망대출 3.0’을 3일 출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상품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만 19~39세 도내 근로 소득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다.

청년들은 대출 한도가 신규 대출

의 경우 1000만원, 대환대출의 경우 3500만원(기존 금융기관 대출 잔액 범위 내)으로 설정된 상품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제주도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청년들에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것을 장려하기 위해 대환대출 한도를 기존 2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1000만원 상향했다.

또 이자 지원율도 종전보다 0.5%

포인트씩 올랐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 1~3등급은 3.5%, 4~9등급은 4.5%의 이자를 각각 지원받는다.

이밖에 상환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으며, 소득 기준은 기존 45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기존 상품인 빛나는 제주청년 희망대출 2.0 이용자도 재신청된 개편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단 신규 대출 지원 희망자는 1인 1회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 희망자는 NH농협은행 제주본부와 각 지점을 방문해 대출

상담을 진행한 뒤, 제주도의 융자지원 추천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대출과 이자 지원 혜택을 받는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도정뉴스-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빛나는 제주청년 희망대출 3.0’이 금융이력 부족으로 초기 대출에 어려움을 겪거나 고금리 대출로 상환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 기반 마련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민기자

중동전쟁 직격탄 제주관광 ‘노심초사’… 4면 / ‘2028년 개교’ 오등봉초등학교 이달 중 착공할 듯… 5면

지하수를 아끼는 오늘, 제주의 미래를 지킬 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체계적인 통합 물관리,
도민 모두의 약속과 실천이 더해질 때, 제주의 청정한 물은 지속됩니다.

- 빗물, 하수재처리수, 중수도 등 대체수자원 적극 활용
- 비료·축산분뇨·하수 등 지하수 오염원 관리 강화
- 일상 속 물 절약 실천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